

오늘 기후변화 학술대회, 관심집중 논문 2편

2090년 목표, 겨울 소멸

온난화 이대로 진행되면

일년 내내 영상기온 유지

오는 2090년 목표와 부산, 강릉에 겨울이 사라질 전망이다. <표>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팀이 29일 발표한 논문은 따르면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기후예측 시나리오대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90년 목표·부산·강릉은 일년 내내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서울의 겨울일수는 1920년대보다 63일, 인천 62일, 대구 91일이 줄어든다. 연구 결과 지난 90년간 우리나라에서 봄의 시작이 점점 빨라지고, 여름일수는 늘어나는 반면 겨울은 줄어들었다.

■목표의 계절 시작·종료일과 계절 길이 변화

1920년대	봄	6/6	여름	9/29	가을	12/20	겨울	3/8
1990년대	+4일	6/1	+8일	10/2	-2일	12/21	-10일	2/27
2040년대	0일	5/27	+12일	10/9	-7일	12/21	-5일	2/22
2090년대	+19일	5/12	+26일	10/20	17일	1/19(6.7도 기준)		

봄의 시작(최저기온 0도 이상 및 평균기온 5도 이상) ▲여름의 시작(평균기온 20도 이상 및 최고기온 25도 이상) ▲가을의 시작(평균기온 20도 이하 및 최고기온 25도 이하) ▲겨울의 시작(최저기온 0도 이하 및 평균기온 5도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기온 1도 올라가면 영산강수량 20% 감소

낙동강과 함께 기후변화 가장 민감

5.3% 늘어나고, 강수량은 ±10% 정도 변화한다고 배교수팀은 설명했다.

한반도의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영산강의 수량이 최대 19.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섬진강의 최대 감소율은 18.4%로 예측했다.

이 경우 영산강의 유량은 -19.9%~+12.7%, 섬진강 -18.4%~+10.6%의 수량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의 ▲금강 -17.5%~+11.5% ▲한강 -18.2%~+12.4%였으며, 낙동강은 -21.6%~+14.6%로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

세종대 토목환경공학과 배덕호 교수는 29일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연평균 기온·강수량·유출 변화율을 이용해 수자원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이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유량이 줄어든다면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기후예측 시나리오(SRES A2)대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가정했을 때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강물의 증발·증산량은 3.4~

이 논문은 ‘한국기후변화협의체’가 30~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기후변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교서도 무자격 원어민 강사 채용

광주 초·중학교 8곳 교장 등 임진

방과후학교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에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광주지역 국공립 초·중학교 8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회화지도 교사 자격(E-2비자)이 없는 원어민을 검증 절차 없이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강사로 고용한 광주 C중학교 교장 A 씨 등 광주지역 8개 초·중학교교장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여·23) 씨 등 6명의 영어·중국어 강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등산 수박 많이 드세요” 29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수박 공동집하장에서 열린 ‘출하기념제’. 제복(祭服)을 입고 제관(祭冠)을 쓴 재배 농민들이 성공적인 출하를 기원하는 제(祭)를 지내고 있다. 무등산 지역에서 재배된 ‘푸앵이’의 올 생산 목표는 3천여 톤(2006년 2천500톤)으로, 16호 농가에서 1억5천여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유지람기자 jrwi@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학교 교장은 올해 3~7월 방과후학교의 원어민 교사 프로그램에 강사자격이 없는 J씨 등 영어·중국어 강사를 검증절차 없이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들은 브로커나 시내 어학원 등을 통해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소개받고 시간당 3만~3만5천원을 주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까지 외국인 22명, 무자격 강사 고용 어학원 대표 24명, 국공립 초·중학교 교장 8명 등 모두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모두 국공립학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까지 무자격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친 외국인 17명과 이들을 고용한 학원대표 19명, 브로커 등을 검거한 뒤 일선 학교에도 이들이 고용된 정황을 포착, 광주 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날까지 외국인 22명, 무자격 강사 고용 어학원 대표 24명, 국공립 초·중학교 교장 8명 등 모두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모두 국공립학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까지 무자격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295) 김장독



다 좋은 건축·신발·주류 KCC

DS건설(주) KCC창호, 현수막, 도어, 대차량

KCC창호, 시스텔창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슬리본, 배선, 대차량

실리콘, 방수재, 접착제, 테이프

유명 목가수 마약 투약혐의 체포

상나팔

○마약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은 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유명 목가수가 도피 생활 5개월 만에 귀국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들린다.

○2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전국의 22개 방·의원을 수십 차례 방문, 922일분의 마약류 성분이나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마약류를 사용하게 했다는 것.

○경찰은 한 마약상으로부터 J씨에게 히로뽀를 공급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3월 중순경 J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양성반응이 나오자 J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J씨는 경찰에서 “지병인 대상포진으로 몸이 아팠기 때문에 병원 처방을 받아 투약했을 뿐”이라고 부인. /연합뉴스

목포시 사회복지 담당 女 공무원

기초수급자 생계비 1억여원 횡령

목포시는 29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모(여·40)씨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1억3천500만원을 횡령해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4년 동안 목포시 삼향·산정·연산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수급자 90명에게 전달돼야 할 생계비 1억3천500만원을 매달 친인척 4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시 관계자는 “전씨는 신규 수급자

가 결정되면 ‘두 달 후야나 돈이 입금 될 것’이라고 알린 뒤 두 달치 생계비만 수급자 몰래 빼 먹었다”면서 “수급자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매월 8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4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난 24일 ‘기초 수급자 생계비 지급 안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받은 수급자의 신고 이후에야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비는 수급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광주서 밤길 40대 여성 피살

광주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40대 여성이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밤 11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운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안모(43·주부·광주시 북구 운암동)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고모(여·26)씨가 발견, 119 구

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무슨 말을 하려다 오른쪽을 내밀며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안씨는 왼쪽 복부를 한 차레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안씨는 이날 밤 11시에 자녀들에게 남편(44)을 만나러 간다고 말한 뒤 외출했다가 집에서 불과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은 북구 양산동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 기자 golee@

허위 유치권 경매 방해 나이트클럽 사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9 단독 박현수 판사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이 경매에 넘어가자 일부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꾸며 경매를 방해한 뒤 월급에 가족 명의로 낙찰받은 혐의(경매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4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허위 신고한 유치권 신고금액이 17억원을 넘어서고, 이로 인해 약 51억원의 부동산을 3배나 싼 가격인 약 17억원에 아내와 장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 기자 golee@

신문기사의 광고에 대한 불만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3국어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kjpec.or.kr

한국언론진흥협의회 목격(목격)팀

생명의 빛과 소리로 결성된 海印眞經이 드디어 출판!!!

海印眞經이 나왔다.

海印을 개인이 창조해 내는 海印眞經이 나왔다.

海印眞經을 통해 영혼의 성장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88-3584 유혜진